

##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역사

이 명 현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sup>1)</sup>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기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요한계시록 18: 11 - 13)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2,000년 전에도 매우 다양한 물건들이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상인들이 당시 로마가 직접지배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넓은 영역의 곳곳에서 가지가지 돈벌이가 될 만한 물건들을 사고 팔므로써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귀금속은 스페인과 중동지역에서, 고급 옷감은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향료는 아시아로부터, 포도주는 프랑스 지역에서, 곡물은 이집트 지역에서 공급되었다. 노예는 공급처가 다양해서 시리

---

1) 이 글은 신앙인으로서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의 견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아, 소아시아, 이집트, 게르만,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공급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물건들은 당시 '세계(또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중심'이요,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로마로 들어와서 거래되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거래되던 수많은 물품들 그리고 그 물품들의 다양한 원산지를 보면 이미 그 당시에 요즘 말하는 '세계화'(globalisation) 비슷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고 느껴진다.

이와 같이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한 곳으로 모여 그곳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또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로마라는 '세계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력한 군사력과, 능란한 지배전략에 의해 동서로 스페인에서 유다까지, 남북으로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로마의 패권 아래 들어있었고 그 안에서 평화와 치안이 유지되었다. 이 넓은 지역 구석구석까지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솜씨로 포장도로가 깔리게 되니까 쉽게 사람과 물자가 왕래할 수 있었다. 통일적인 화폐와 통일적인 도량형(度量衡)이 보급되니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고, 어쩌다 거래와 관련해서 다툼이 생기면 해결해줄 체계적인 로마법도 보급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 로마제국은 사라진지가 오래인 오늘날, 로마에서 보면 땅 끝처럼 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계화'란 말을 시도 때도 없이 들으며 살고 있다. 로마 시대에도 이미 세계화 비슷한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듣고 겪고 있는 세계화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힘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왈러스타인과 같은 학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듣고 또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의 뿌리는 15세기 후반, 16세기 초반에 모습을 나타낸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체제라고 본다. 이때부터가 근대

---

2) 김종현(1987) 『경제사』 참조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근대 이후의 세계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이다. 이 자본주의는 그때그때 개발되는 과학, 기술, 지식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돈을 쏟아붓기도 하면서 최대로 이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 이 움직임이 공간적으로 커지면서 갈수록 더 강한 힘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또한 세계 도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갈수록 더 촘촘하게 연결시켜나가는 것이 세계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가 얼마만큼 힘이 있어지고 어떤 성격을 갖게 되었는가에 따라 세계화의 모습도 달라져 왔다.

근대 전기(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이루어진 세계화의 주인공은 상업 특히 국제무역을 통해 이윤을 올리려는 상업자본이었다. 15-16세기의 전환기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와 동양으로 가는 뱃길을 발견해냈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서양과 인도양을 열심히 오가며 무역과 식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어떤 물건을, 그것이 흔한 곳에서 드문 곳으로 옮기면 그에 따라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법이다.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지역의 특산품이나 특정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소규모로 가공한 간단한 공산품을 사다가 그것을 만들기 쉽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파는 것이 경제적 이윤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 국왕의 보호를 받는 상인자본가들이 바로 이 과정을 장악하고, 이 단순한 돈 버는 방법을 당시에 자신들이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적용하려고 함으로 인해 세계적인 물건의 흐름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상품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처음에는 금과 은이 들어왔다. 이런 귀금속들은, 동양에서부터 유럽으로 들어오는 향료의 댓가로 동양으로 다시 흘러갔다. 17-18세기에 들어와 거래되는 상품들이 보다 대중적인 것이 되

면서 무역의 흐름도 더욱 크고 복잡해졌다. 식민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아메리카 지역에서 사탕, 담배, 면화, 염료, 코코아, 목재 등이 들어왔다. 이런 상품들 - 주로 하얀 색이 많은 '백색 상품' - 을 생산하는 농장에 필요한 노예라는 '흑색상품'은 아프리카에서 공급되었다. 동양으로는 유럽의 모직물과 같은 공산품과 아메리카에 들어온 귀금속이 흘러나가고 그 댓가로 동양으로부터 면직물, 홍차, 견직물 등이 흘러들었다. 이런 물건들은 그 이전에는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 대량으로 유럽으로 공급되면서 중간층이 소비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근대전기에 걸쳐 전개된 유럽중심의 경제체제에 의한 세계화는 로마와 같은 세계제국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세계제국 체계는 강력한 무력을 가진 하나의 제국에 주변의 많은 문화권들이 종속되는 형태를 갖지만, 이 시기에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때에 따라 포르투갈, 스페인,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등 패권을 잡는 국가들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느 한 나라도 세계경제권에 들어오는 다른 모든 나라나 지역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 지배하지는 못한다.

둘째로, 이 시기의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행위는 절대왕정의 후원에 힘입었고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형성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무역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특권 상인집단 및 공업집단, 그리고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하는 왕권세력이 서로 손잡음으로 인해 활발한 해외탐험, 무역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로, 앞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세계적인 무역의 흐름은 특정 지역, 일부 계층의 수요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에 걸친, 폭 넓은 계층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을 두게 되었다. 로마 시대 세계 각처로부터의 상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로마로 집중되어 그곳의 부유층의 소비에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적

필요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그 물품을 수용하는 계층도 상류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어진 것이다.

근대후기(18세기 중 후반 - 20세기 초)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체제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세계화는 공장제적인 산업생산을 통한 돈벌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을 통해 면, 철, 석탄 산업 등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이용한 공장생산이 출현하였다. 이제 이윤의 원천이 단순히 지역적 특산품을 사고 파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원료를 구해오고, 다른 한편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여, 원료와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생산하는데서 나오게 되었다. 이 과정을 장악한 산업자본이 최대한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쓸 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하게 되고, 만들어진 제품을 사줄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아메리카 등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와 식량을 생산하여 유럽에 판매하고, 영국 등 산업국가들은 공산품을 이 지역에 파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철도가 유럽과 북 아메리카에 거미줄처럼 건설되어 나갔고, 아시아와 중남미에도 물자수송과 식민지 지배를 위해 철도가 뻗어나갔다. 바다에서도 종전의 범선보다 힘세고 빠른 기선이 출현하여 보다 많은 물건과 사람들을 훨씬 싼 값에 실어나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화의 내용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우선, 경제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국제무역에 의존하게 되었다. 1800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 19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계 1인당 경제생산은 2.2배가 증가하였지만 1인당 무역은 25배나 증가하였으니<sup>3)</sup> 이 시기의 경제발전에서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3) 김종현 (1987)『경제사』

둘째, 국제간의 물건의 흐름이 이전에는 소비와 직결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이제는 이윤을 목표로 한 생산과 밀접히 관련되게 되었다. 즉, 유럽과 기타 지역의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이전에는 수입되어서 바로 소비되거나 간단한 가공을 거쳐 바로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대규모 공업생산의 원료가 되는 것이 많아졌다. 또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산품들이 선진국간에 교환되거나 다시 저개발국가로 수출되었다.

셋째, 국제간의 물건 흐름이 이렇게 선진국의 공산품 생산을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자본주의 선진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뚜렷하게 생기게 되었다. 즉,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여러 지역들은 선진국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원료를 공급해주고 그 제품을 사주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게되었다. 이들 지역은 선진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상품에 의해 자신의 재래공업을 파괴당하고, 선진국의 경제가 필요로하는 특정한 1차 산품만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예컨대 1800년대 전반까지 고급 면제품을 생산하던 인도는 영국의 면제품이 강압적으로 유입되면서 면공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영국의 원면 공급기지가 되었다. 브라질에도 면공업이 있었으나 영국 면제품으로 인해 사라지고, 커피를 중심으로 한 특산 1차 산품 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선진국 중심의 지배-종속의 자리잡기는 경제력 격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흔히 군사적, 정치적인 침략과 억압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민지 지배체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민족의 역사도 식민지의 나라로 떨어졌다. 일제의 총칼에 의해 한일합방이 되면서 공업발전을 억압당하고 일본사람들이 떡을 쌀을 생산하는 기지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전체가 식민지를 차지하고 서로 뺏았으려드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 일본의 각축장이 되었다. 식민지를 놓고 벌였던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무지막지한 싸움은 마침내 두 번

에 걸친 세계대전이라는 무서운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면서 세계화를 계속해 나간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변화는 생산이 세계화된 것이다. 즉, 이익을 내는 과정 중에서 원료를 구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생산하는 과정 자체도 세계 어디에서든 이윤을 최고로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를 거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폴크스바겐은 독일에 본부를 둔 자동차 회사이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에콰도르, 이집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유고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다.<sup>4)</sup> 또한 단순히 비슷한 생산공장이 세계 여러 곳에서 나란히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생산의 각 단계가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전세계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즉, 전에는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의 단계들이 하나의 공장 안에서 컨베이어에 의해 연결되었던 것이 이제는 대륙을 오고가는 배와 항공기에 의해 연결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생산의 단계들이 서로 다른 기업에 의해 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흔히 다국적 기업이라 불리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남미에서 수확된 오렌지가 통조림이 되어 프랑스 슈퍼마켓 진열대에 오를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식품 회사에 의해 통제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물론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에 눈부시게 발달한 교통, 통신,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원료를 가장 싸게 구할 수 있는 곳, 작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노동력을 가장 낮은 임금에 구할 수 있는 곳, 물건을 판매할 시장에 가까운 곳 등, 조건에 맞는 곳으로 생산과정을 전 세계에

---

4) 홉스봄(1994) 『극단의 시대』, 이용우 옮김

걸쳐 분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것과 함께, 금융측면에서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국제화, 세계화 경향이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축적된 거대한 규모의 '돈의 산'들이 이익이 될 곳을 찾아 전 세계로 활발히 움직이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이 '돈의 산'들의 움직임은 1980년대 이후 보다 가속화되면서 투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남아도는 돈이 더욱 돈벌이가 될만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이득을 노려 전세계 국경을 번개같이 넘나드는 거대한 뭉치돈들의 움직임은, 곡식과 사람을 살게 하는 강물의 흐름과 같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해일(海溢)과 같이 되어버리기 쉽다. 이 해일의 위험성에는 선진국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전후의 생산의 세계화 과정에서 새롭게 공업화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이와 같이 생산의 세계화를 이끌어내고 조직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의 세계화를 만들어 가는 초국적(超國的) 금융자본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2차 세계 대전 후 선진국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경제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금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이후 이러한 정책이 실업과 물가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기 시작하자, 신자유주의 정책이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올법과 선지자'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공기업과 같은 정부의 경제활동의 폐지-축소, 조세나 사회보장과 같이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치들의 축소, 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자유의 최대한 보장 등



이다. ‘가장 흉악한 형태의 정부개입’을 하고 있었던 사회주의권이 때맞추어 무너져 내림으로써, 신자유주의자들을 의기양양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의 국가가 그 힘을 잃어가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부 위의 정부처럼 움직이는 국제적 기구들의 힘이 갈수록 강해져갔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표되는 이들 국제기구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세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펼쳐지도록 힘을 행사하고 있다. 1995년 1월 1일에 출범한 WTO는 관세나 수입규제처럼 상품의 국제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통신, 국제투자, 지적재산권, 상표 등 무역과 관련이 되는 분야라면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기업과 상업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런 분야에서 국제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마치 한 국가 안에서의 사법부의 판결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귀에 너무나 익숙한 IMF는 국제간의 상품과 자본의 흐름에 핵심적인 고리인 외환관리와 환율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어 운용하고,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에게는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돈을 빌려주는데 공짜가 있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할 때에는 금융과 정부의 재정 등에 있어 구조조정계획의 준수가 요구되며, 그 요체는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도 그 처방이 얼마나 쓴 약인지를 경험하는 환자의 신세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는, 근대 이후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 성격이 변화해온, 자본주의라는 큰 힘에 의해 이루어져 온 기나긴 과정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세계화가 자본주의에 의해 이루어져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세계화가 가져다주는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을 아는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각자가 사는 자리에

서 구체적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될 것이다.

요한의 계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계제국 로마는 떠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삶의 터전이였다. 그 세계제국은 그것이 가진 세상권세로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하기도 하였지만, 동시대에 또한 소중한 복음이 그 당시 그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자본주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자본주의에 의한 세계화는 우리가 발을 뺄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걱정은 할 필요가 별로 없지만, 그 거대한 힘은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인간화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세상 전체, 사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제국'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아는 것은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기도 한 것이다